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8화 아힘사와 '앙굴리 마라'



“**응** 제까지 놈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나에게 이런 망신을 주는거야... 내 꼭 앙갚음을 하고 말 것이야. 비록 내 모습이 더욱더 초라해 지더라도 저 놈을 기어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 것이야. 두고 보라지.”

젊은 남자에게 당한 모욕을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앙갚진 마음을 품은 여인은 제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놓고 남편인 마니발타라 브라만이 되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프라세나짓왕을 집견하고 돌아오던 마니발타라는 숲속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다.

“여보.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분해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힘사 놈이... 흑흑, 당신이 외출하자마자 나에게 달려들어... 내가 죽기 살기로 저항해 보았지만 그놈의 힘이 얼마나 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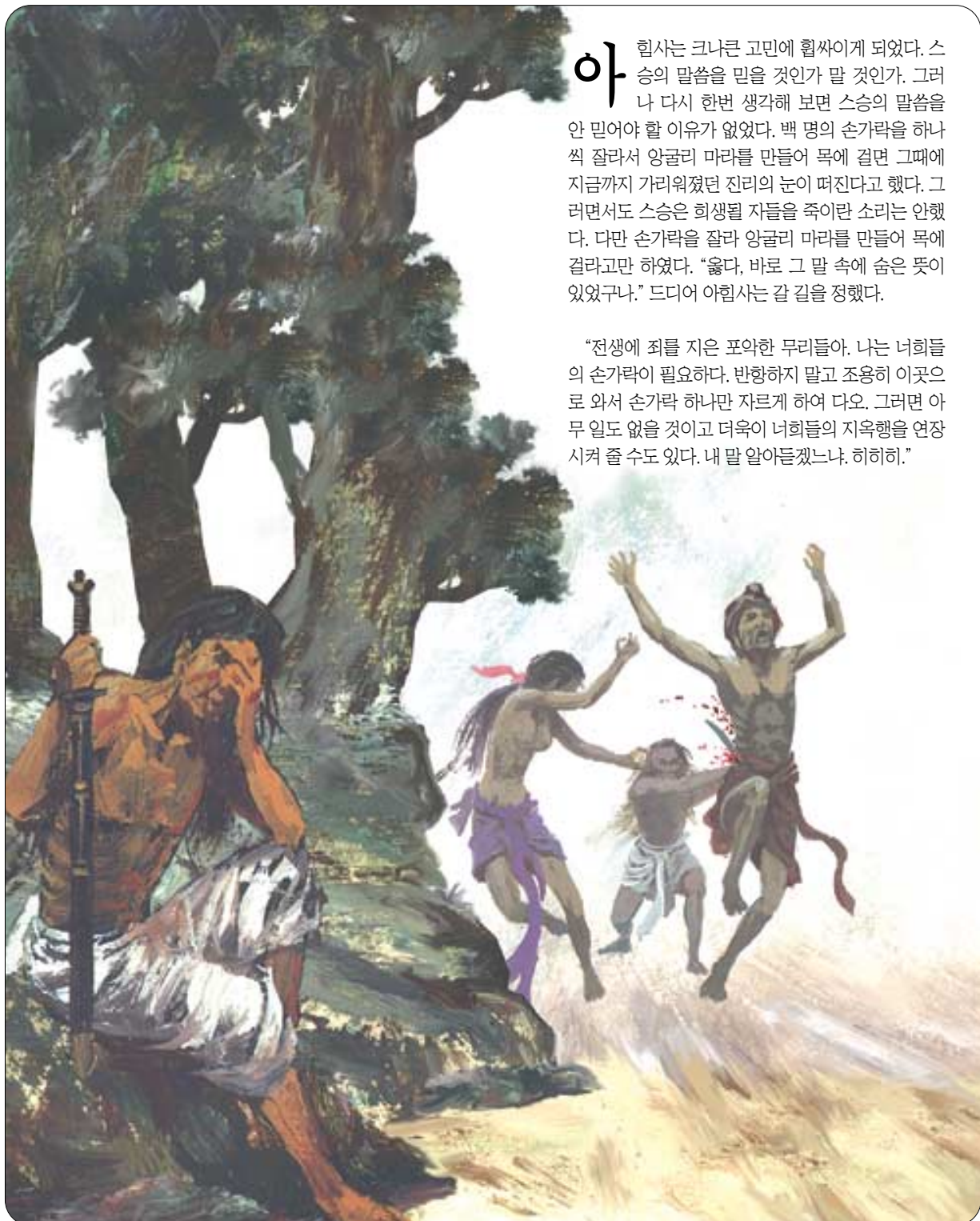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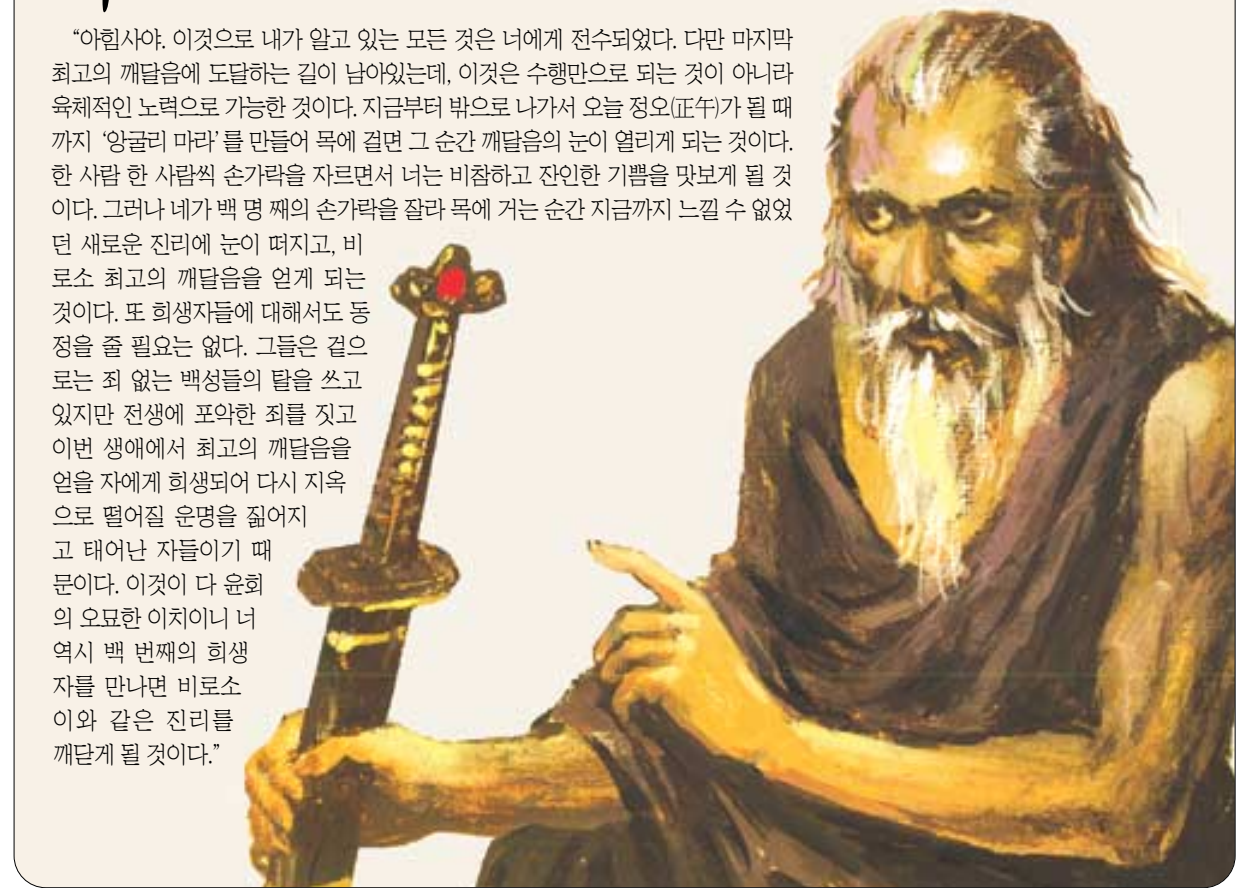
지, 결국은 당하고 말았어요.”
“그만, 그만해! 아힘사 그놈이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승의 아내를 강제로 겁간할 수 있는 것일까. 좋다, 네가 나의 아내에게까지 손을 대며 이 스승을 모욕한다면 나 역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리라.”

스승은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다. 그렇다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세상에 두 번 망신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처벌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마니발타라는 드디어 아힘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으니 그것이 바로 앙굴리 마라(Anguli-mala,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도록 시키는 일이었다.



다 음날 아침, 스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면서 아힘사를 불러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아힘사야. 이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전수되었다. 다만 마지막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수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오늘 정오(正午)가 될 때까지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 목에 걸면 그 순간 깨달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너는 비참하고 잔인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백 명 째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거는 순간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에 눈이 떠지고, 비로소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회생자들에게 대해서도 동정을 줄 필요는 없다. 그들은 겉으로는 죄 없는 백성들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전생에 포악한 죄를 짓고 이번 생애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자에게 회생되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 윤회의 묘묘한 이치이니 너 역시 백 번째의 회생자를 만나면 비로소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 힘사는 크나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스승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승의 말씀을 안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백 명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 목에 걸면 그때에 지금까지 가리워졌던 진리의 눈이 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승은 회생될 자들을 죽이던 소리는 안했다. 다만 손가락을 잘라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만 하였다. “올라, 바로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었구나.” 드디어 아힘사는 갈 길을 정했다.

“전생에 죄를 지은 포악한 무리들이야. 나는 너희들의 손가락이 필요하다. 반항하지 말고 조용히 이곳으로 와서 손가락 하나만 자르게 하여 다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더욱이 너희들의 지옥행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다. 내 말 알아들었느냐. 히히히.”

아 힘사는 스승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명령대로 실행에 옮겼다. 평생 처음해보는 살생(殺生)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아힘사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가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거룩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는 만족감이었다.

아힘사는 스승을 믿었다. “스승은 정오까지 백 개의 손가락으로 앙굴리 마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이 단 한번뿐인 기회임도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의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정오까지 백 개의 앙굴리 마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스승이 쉬운 일을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에 하도록 시켰

졌는가. 아힘사는 방법을 바꾸어 성인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비록 노인이나 연약한 여인네, 혹은 어린 아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들은 다 전생에 죄를 짓고 온 악귀들로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미 살인마로 변한 아힘사는 더 이상 울고 그들을 판단할 사고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성안을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나서 그가 쥐은 손가락은 아직도 한 개가 모자라는 아흔 아홉 개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시거리엔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런데 원망스러운 해는 벌써 중천으로 떠오르며 정오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아... 아... 일생에 단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결국 이렇게 하여 잃고 마는가. 오오 신이시여, 한명의 회생자만 더 보내 주옵소서.” 아힘사는 기도했다.

